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이 **상본**을 세상에 전하여라.

그리고 이제 나는 너의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 말한다.

세상은 타락했다. 세상은 재앙들을 연이어 겪게 될 것이다.

세상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파멸할 것이다.

진리의 영으로부터 도움이 오지 않는다면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인류를 십자가로 다시 데리고 오너라.”

1951년 11월15일 암스테르담 메시지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는 기도의 날

독일 쾰른 랑세스 경기장, 2009년 5월31일 성령 강림 대축일
폴 마리아 시글 신부의 강연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지역에서 오신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년 전인 1959년 5월 31일에 마리아께서는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시며 여인(1)으로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마지막으로 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요아킴 마이스너 추기경의 교구에서 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기도의 날을 열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54년 전에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원하신 것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매년 민족들이 이 목적을 중심으로 이 성화 곁에 모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마리아, 미리얌 혹은 모든 민족들의 여인이 세상에 선사할 수 있는 크나큰 은총이다." 1955년 5월 31일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분은 하느님의 어머니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는 오늘 여기에 우리를 초대하신 주인이십니다!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께서 오심으로써 마리아의 시대는 절정에 이르렀다!

여러분 중 대다수는 수년 전부터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를 충실히 공경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모든 민족들의 여인이신 마리아의 특별한 의미를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고 싶습니다.

마리아께서 파리의 뒤 뒤 밖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로 발현(2)하여 기적의 메달을 세상에 드리내셨던 1830년부터 소위 "마리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 구분은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그 이전과는 달리 1830년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발현하여 당신의 모성적 사랑과 현존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승인을 받은 그 발현들은 프랑스의 라 살레트와 루르드, 아일랜드의 녹, 포르투갈의 파티마, 벨기에의 보랭과 바뇌로 이어짐에서 보듯 대부분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리아의 힘있는 보호와 현존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손으로 금방 잡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가까이에서 계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정면으로 대적하여 모든 민족과 교회와 세상을 쟁그리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지난 180년간 대대적으로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의 오심과 기적의 메달(3)의 계시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마리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여인(4)으로 오시면서 “마리아의 시대”는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 말에 의아해 하겠지만 그 이유를 차츰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암스테르담의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원의를 채운다면, 이것은 우리를 새로운 시대, 새 성령 강림예로 인도할 것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의 발현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성을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모든 생명 영역이 거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세계의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날, 모든 민족들의 여인의 발현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과 민족의 평화가 암스테르담의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께서 원하신 것을 오늘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행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파티마가 전 세계에 던진 교훈

우리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암스테르담 발현과 연결시켜 보기 전에 먼저 파티마의 발현(5)을 되돌아봅시다. 파티마는, 우리가 마리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리아의 모성적 전략을 따르기를 망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파티마의 발현은 하느님의 개입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교회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어머니의 요청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주저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17년에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묵주기도의 모후께서는 러시아(6)와 러시아의 무신론 사상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리아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호전적인 무신론은 바람처럼 빠른 속도로 세계로 퍼져나가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을 잔인하게 짓밟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 한 예로, 1968년에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습격했던 장면을 봅시다. 프라하에서 대학생들과 가장들이 지난 밤 사이에 벌어진 상황앞에 무력하게 서 있습니다(7).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의 어느 노동자는 공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러시아 탱크들에 의해 점령되어 있는 거리를 보고는 갑작스럽게 닦친 속수무책의 현실을 고통스러워하며 거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8).

러시아 왕정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면서 교회와 수도원 50,000곳이 파괴되었고, 수백만 명이 시베리아의 죄수 수용소인 굴락스에서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파티마에서 마리아께서 요청하셨던 것들을 듣고 따랐다면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묵주기도의 모후께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관해서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9)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마리아께서는 구체적인 은총의 수단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목주기도(10), 보속의 첫토요일과 영성체, 그리고 마리아의 티없이신 성심계의 봉헌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머니 마리아의 간절한 요청을 사람들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11)와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군인들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12)은 독일의 전쟁 포로들이 시베리아 수용소로 이송되기 전 모스크바에 집결해 있는 모습입니다.

증오심에 불타는 사탄이 하느님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쟁그리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13).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수도원임에 틀림없는 이탈리아 몬테 카시노의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 아마도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폭파되기 전(14)과 후(15)의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물론이고, 유럽의 도시들, 특히 독일의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첫 원자 폭탄이 투하 된지 한달 후인 1945년 9월에 완전히 파괴된 히로시마를 찍은 항공사진을 보십시오(16).

지금 우리는 독일 쾰른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5년 쾰른의 모습인데, 당시 독일의 다른 여러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흡사 유령들의 도시 같습니다(17).

파티마에서 마리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기에 유감스럽게도 이렇듯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이름 없는 고통과 비극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께서 암스테르담에 오시다



그러나 사랑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까닭에 마리아께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의 끝 무렵에 우리에게 새로운 도움을 주시려고 급히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오셨습니다.

1945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18)에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이다 페르데만(Ida Peerdeman)의 집에 소리 없이 오셨습니다. 그때 그녀는 40대의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께서는 그날부터 약 14년 동안 언여섯 번에 걸쳐 발현하여 세계의 국가와 민족들에 관해 말씀하셨으며, 어느 나라보다도 독일에 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교황, 주교, 신부, 수도자, 가족,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선한 뜻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무엇보다 어머니의 위치에서 신앙과 도덕의 타락을 염려하셨으며, 재앙과 전쟁을 경고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위협적인 대재앙에서 구하여 새롭고

거룩한 영으로 가득한 시대, 평화의 시대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사, 특히 성제성사에 깃든 은총의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께서는 사랑을 강조하셨고 사랑의 삶을 당부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다 페르데만은 푸른 하늘에서 대문자로 쓴 “사랑”이라는 글자를 목격했는데, 그럴 정도로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특히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로, 자비의 원천인 십자가로, 창조의 중심인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도 우리 구원의 십자가를 자비의 예수님의 성화와 함께 오늘 이곳 쾰른의 경기장 한가운데에 세웠습니다.

발현 목격자 이다 페르데만

여러분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리아의 암스테르담 발현에 관해 잘 알지 못하기에 목격자인 이다 페르데만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19)은 이다 페르데만의 27세 때 모습입니다. 이다는 매우 겸손하고 주교와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명에 있어서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결혼은 하지 않았어도 매우 따뜻한 모성을 지닌 여성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미 12세 때 그녀는 매주마다 받는 교해성사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빛나는 흰옷을 입은 “여인”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날은 1917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파티마에 마지막으로 발현하여 태양의 기적(20)을 일으켰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파티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2세의 소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후 이다는 충격적인 환시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진(21)에서 보듯, 그 환시들을 통해 그녀는 반드시 막아야 할 재앙들뿐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들림없이 오게 될 교회의 영광스런 쇠신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다 페르데만은 1996년 6월 17일에 90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하틀렘 교구장이었던 헨릭 보머스 주교는 발현 목격자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장례미사를 직접 집전했습니다(22). 보머스 주교가 암스테르담 발현과 메시지의 진실성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장례미사에서 보머스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다 페르데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나는 이다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그녀는 마지막 날까지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서 영광을 받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 나는 그녀가 절대적으로 진실했고 그녀가 체험했던 것에 대해서 진실을 말했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증명하셨다!

발현 목격자에 대해서 이처럼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은 보머스 주교가 자연스럽게 그녀와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많은 대화를 나눈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다른 마리아 발현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없이 주셨던 분명한 증거들이 암스테르담 발현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여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징표는 내 말에 있다.” 1957년 5월 31일

이것은 그녀가 이미 말한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취됨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그녀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증명해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이미 1950년에 이다 페르데만은 환시에서 독일의 통일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때 마리아께서는 독일 위에 놓인 붉은 선을 가리키며 “유럽이 둘로 갈라진다.” 1950년 12월 10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마리아께서는 손으로 그 선을 단번에 지워버렸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40년이 지난 1989년에 우리 자신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23)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동서독을 가르는) 장벽은 100년도 끄떡없을 것”이라던 동독의 호네커 서기장의 말은 10개월 만에 무색하게 되었습니다(24). 붕괴 몇 주 전인 1989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이 군사 행진(25)에서도 호네커의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69년에 미국 우주인이 달에 착륙하는 모습(26)도 이다는 이미 23년 전인 1946년 2월 7일에 환시로 보게 됩니다. 그때 이다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정확하게 묘사한 대로, 무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951년 2월 11일 환시 중에 이다는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흰색 주교관을 쓴 세계의 모든 주교들과 교황관을 쓰고 두꺼운 책을 들고 있는 교황을 보았습니다(27).



하지만 이다 자신은 물론이요 세상의 그 누구도 그녀가 이날의 인상 깊은 환시 속에서 그로부터 11년 후에 개최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보았다는 사실을 믿거나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이다에게 이 발현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주신 것은 1958년 2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밤이었습니다. 그때로 봐서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교황 비오 12세(28)가 8개월 후인 10월 초에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임을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잘 들어라. 지금의 교황 비오 12세는 올해 10월 초에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공동 구속자, 중개자 그리고 변호자인 모든 민족들의 여인이 그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 하셨습니다. 이다의 영적 지도자도 이 당부를 존중하여 이다가 기록한 내용을 봉인된 봉투에 담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다는 자신의 집에 이 메시지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예언대로, 교황 비오 12세는 1958년 10월 9일에 카스텔 간돌포에서 선종했습니다(29). 바로 그날 이다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복사본을 들고 영적 지도자에게 달려가 사실로 입증된 그 메시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증거로 인해 이다의 영적 지도자는 암스테르담 발현을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결정하고 미리 아시는 분은 오로지 하느님 한 분뿐이심을 사제인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다의 영적 지도자인 도미니코 수도회 J. 프레에 수사 신부(30)는 봉인된 편지를 교황청으로 보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공의회와 교황의 삶과 죽음까지 내놓는다면, 암스테르담의 메시지가 교회와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입장

암스테르담 발현 당시의 암스테르담·하를렘 교구의 후이버스 주교는 물론이요 그의 후임들과 교황청의 신앙교리성에서도 이 발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보고받고 조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교구의 관할 위원회는 수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5월 신앙교리성은 암스테르담·하를렘 교구의 당시 교구장인 츠바르크루이스 주교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바티칸의 공식 신문인 '오세르바토레 로마노'에도 암스테르담 발현에 관

한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암스테르담 발현이 초자연적인 것인지에 관해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네덜란드 내에서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 암스테르담 발현의 진실성

과 관련된 보고와 청원이 담지했습니다. 그에 따라 교회의 첫 공식 견해가 나온 지 22년이 지난 1996년, 암스테르담의 헨릭 보머스 주교와 요셉 마리아 폰트 보좌주교는 신앙교리성과의 협의를 거쳐, “모든 민족들의 여인”이라는 성경적 호칭으로 암스테르담의 마리아를 공식적으로 공경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3년 전인 1996년 5월 31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통지를 통해서 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암스테르담 발현과 메시지,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여인’이라는 마리아의 호칭은 별개의 문제다. 교회는 발현들의 초자연적인 성격과 메시지의 내용에 관해서 이 시점에서는 공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 ‘성부의 아드님이신...’으로 시작되어 마리아를 ‘모든 민족들의 여인’이라고 칭하는 그 기도문은 이미 1951년에 당시의 후이버스 주교에게서 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칭으로 마리아를 공식적으로 공경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호보 31-1998년 5월 31일에 열린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제2회 국제 기도의 날에 헨릭 보머스 주교와 요셉 마리아 폰트 보좌주교가 입장하고 있다. 그 뒤는 그날 미사를 주례하기 위해 로마에서 온 오스트리아의 알폰소 M. 쉬티클러 추기경이며, 그는 그때 이미 암스테르담 발현의 진실성을 믿고 있었다.)

2002년 5월31일 현재 암스테르담의 교구장이신 요셉 마리아 폰트 주교(32)는 1945년부터 1959까지 모든 민족들의 여인으로서 암스테르담에서 발현하신 마리아 발현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나의 전임자인 헨릭 보머스 주교와 나는 1996년에 암스테르담의 마리아 공경을 공식적으로 허락했습니다. ... 그리고 6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암스테르담의 마리아 공경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전해져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33), 많은 주교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인했습니다(34). ... 각 지역의 주교는 교황 성하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관할 교구에서 일어나는 사적 계시의 진실성에 관해 양심에 따라 인정 여부를 표현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전의 조사 결과들과 그에 따라 제기된 질문들과 이의에 관련하여 다시 한번 신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한 나는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시며 여인으로서의 마리아를 공경하는 교구의 주교들(35)에게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를 통한 영적 열매들과 계속적인 발전에 관하여 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의견과 증언 그리고 발전 등을 고려하고, 기도와 신학적인 숙고를 거쳐 나는 암스테르담의 발현은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여인, 어머니 호칭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이미 첫 발현 때 아름다우면서도 성경에 언급된 호칭인 “여인”으로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마리아께서는 이 새로운 호칭을 150회 이상이나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여인, 마리아,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이다. 너희는 나를 모든 민족들의 여인 혹은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라고 부를 수 있다. 1951년 2월 11일

왜 모든 민족들의 “여인”입니까? 왜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지금 그리고 이 시대에 “여인”이라는 호칭으로 발현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 보아야 합니다. 오로지 성경에서만 이 말의 의미가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 성경의 시작 부분인 창세기에서 이미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인”은 당신의 아들과 함께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36).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창세 3, 15).

가톨릭 성서학은 이 여인에게서 아드님과 함께 사탄을 이기는 마리아를 보는 데 절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마리아께서는 직접 이를 확증하십니다.

“나는 내 발로 뱀을 짓밟았다. 나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성자와 하나가 되었다.” 1961년 8월 15일

“예언대로 여인은 사탄을 정복한 것이다. 여인은 자신의 두 발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1955년 5월 31일



2.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시고 은총을 증개하시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37).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요한 2, 4).

그러자 “여인”, 즉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명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 5).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신 것은 어머니의 요청을 강하게 거절하는 의미로 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어머니라는 차원에서 한층 더 나아가 모든 이의 어머니로, 온 세상의 어머니로 확장시키는 의미를 지니며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마리아께서는 당신 아드님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여인”으로서 그 기적을 칭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점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카나를 언급하십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여인”은 나지막하

지만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큰 기적을 행하시려고 어머니의 말씀을 기다리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더냐? 그분은 기적을 행하기 원하셨다... 하지만 그분의 어머니가 칭할 때까지 기다리셨단다. 이 점을 알아듣겠느냐? ... 이러한 생각은 그들이 여인과 주님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1956년 5월 31일

3. 요한 복음사가는 갈바리아에서 공동 구속자이신 그 “여인”에 관해 묘사합니다(38).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람 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요한 19, 2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카나와 십자가라는 두 번의 장엄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인’으로 칭하셨습니다(요한 2, 4; 19, 26 참조). 여인으로서 마리아는 구원사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창세 1, 27 참조), 또한 구원사업에서 새 하와를 새 아담의 옆에 두고자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길을 갔지만, 새 아담인 하느님의 아들은 새 하와인 어머니의 협력으로 인류를 원래의 품위로 다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1997년 4월 9일

“예수, 어머니 그리고 교회의 때에 구원자의 말씀들은 장엄하며 선포한 바를 성취합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어머니시며,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1983년 3월 8일

1952년 4월6일 암스테르담 메시지는 이를 확증합니다.

“십자가의 희생 제사에서 성자께서는 은 세상에 이 호칭을 선사하셨다.”

4. 마지막으로 요한 묵시록에서 우리는 태양을 입은 “여인”을 봅니다 (39).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 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묵시 12, 1-4).

이 표징에 관해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 5월 13일에 발표한 사도적 권고 「큰 표징 Signum Magnum」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 성 요한이 하늘에서 보았던 큰 표징, 태양을 입은 여인은 가톨릭 교회의 전례에서 구세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인”과 용의 전쟁은 우리에게 다시금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창세 3, 15) 하는 예언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1953년 12월 3일 암스테르담에서 “여인”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세력들이 풀려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민족들의 여인을 제압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받을 때 마리아께서는 항상 “여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마리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는 어머니에게 맡겨졌다. 성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 1961년 8월 15일

이 호칭과 관련해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는 또한 무수히 많은 위로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인은 이 호칭으로 세상을 구할 것이다.” 1963년 3월 20일

“모든 민족들의 여인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이 호칭으로 여인에게 기도해야 한다.” 1963년 10월 11일

마리아는 종족,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아직 어머니인 당신을 알지 못하고 당신의 모성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더욱이 마리아를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지속적인 세계



평화, 참된 종교 통합, 성령 안에서의 일치를 하느님께 전구하여 우리에게 선물하실 분은 참으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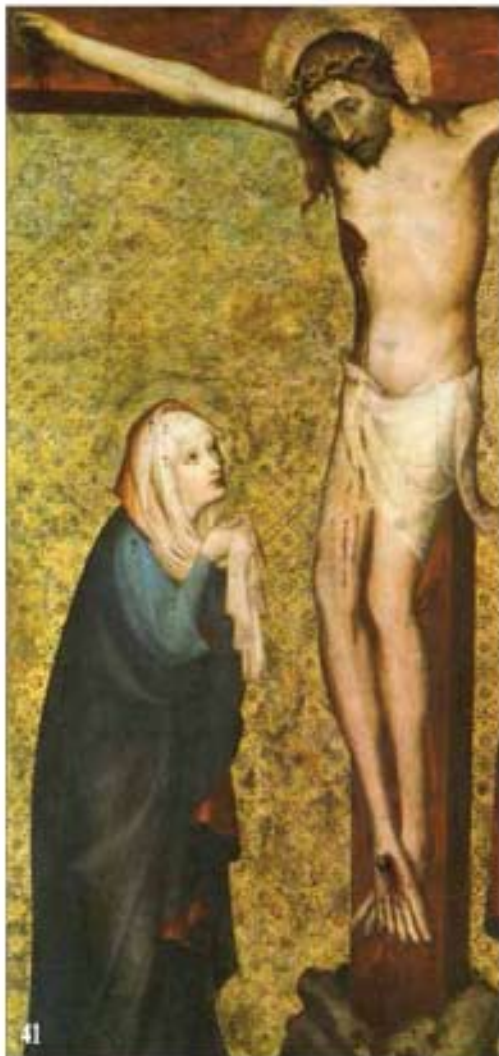


지속적인 세계 평화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일치라는 은총을 우리가 간청하여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그녀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1945년 3월 25일 첫 발현에서 이미 “그 기도는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51년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야 그 기도문을 독일에서 이다 페르데만에게 받아 적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이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는 그날 마리아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40)에 관한 환시 중에 그 기도문을 제시하셨다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환시가 중단되면서 이다는 갑자기 큰 십자가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께서 받으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녀는 기도문을 받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있었습니다(41). 여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니를 따라하여라!’* ... 그 여인이 *‘성부의 아드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고 시작했는데 너무 아름답고 감명 깊었습니다. 그 말들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흉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 주소서.’* 하고 말씀하실 때 ‘지금’이라는 말을 강조하셨고, *‘모든 민족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어’* 에서 ‘모든’이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아멘’이라는 말을 매우 아름답고 장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한 마디씩 따라 했는데 그 순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께서 *‘아멘’* 이라고 했을 때, 그 기도문 전체가 내 앞에 큰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것이 하나의 기도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는 애써 그것을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도문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부의 아드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지금 이 세상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 주소서.

모든 민족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어

그들을 타락과 재앙과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일찍이 마리아로 불리었던 모든 민족들의 여인이시여,

저희의 변호자가 되어 주소서. 아멘.

여인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아가, 이 기도는 매우 단순하고 짧아서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자신의 심자가 앞에서 바칠 수 있을 것이고, 심자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심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될 것이다.”

암스테르담에 오신 마리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성령께서 지금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 임하시도록 성령 강림을 간절하게 청하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바침으로써 민족들이 타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타락과 배교, 배교로 인한 도덕적 타락과 매일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은 도덕성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음란물과 사탄 추종자들을 통한 타락(42), 사탄 추종자들은 거의 자살로 끝을 냅니다. 독일에서만 보건대, 젊은이들 중 사탄 추종자가 60,000명으로 추정됩니다.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바덴-뷔르템베르거의 지방 경찰청은 “학교마다 핵심 사탄 추종자가 적어도 한 명은 있다.”라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 음악과 비디오와 DVD를 통한 나쁜 영화들로 날마다 전 세계에서 수 억 명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라”(43)라는 제목의 공포 영화는 현재 전 세계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낙태로 인한 타락(44)도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 정책 연구소가 2008년 5월 7일자로 유럽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유럽에서 낙태로 인해 백만 명의 태아가 살해된다고 합니다. 독셈부르크와 폴타의 인구를 합한 숫자와 같습니다.

이 기도를 바침으로써 우리들이 모든 재앙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불행과 자연 재해,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는 화재(45), 그 파괴적인 위력 때문에 “백 년만의 대참사”로 표현된 허리케인과 대홍수(46), 지난 4월에 이탈리아의 아퀼라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지진(47), 이와 같은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무죄한 사람들 또한 이런 재앙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민족 전체를 강타하는 기아의 재앙도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유니세프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개발도상국 국민들 중 거의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로 인해 날마다 8,000명의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18,0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갖가지 재난으로 인해 이리저리 떠돌고 있으며 그 수는 나날이 늘어날 것입니다(48).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정말로 가혹할 정도입니다.





이 기도를 바침으로써 우리들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이델베르크의 국제 갈등연구소는 전 세계의 비무장과 폭력의 갈등 지수가 345로 올라갔다고 5개월 반 전에 발표했습니다(49). 이것은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도와소서. 그 갈등의 불씨는 의심할 바 없이 가장 단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습니다. 이란은 수년 전부터 핵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목적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란의 논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그곳에 있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 실험을 강행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50). 다시금 사람들은 “제3차 세계대전의 무시무시한 시나리오”의 실현 임박을 입에 올립니다(51). 매우 노련한 수많은 외교관들이 국제적인 노력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정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저명한 정신심리 전문가인 크리스타 메베스도 2006년 아옥스부르그에서 열린 “제2회 전 세계 교회의 만남” 개막식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005년에 그녀는 가톨릭 교회가 수여하는 가장 높은 훈장인 십자 훈장을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대신한 마이스너 추기경에게서 받았습다(52). 그녀는 개막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상에 이미 존재하는 원자 폭탄만으로도 아름다운 지구의 모든 사람과 수많은 생명체들은 사라지고 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슬람교도들이 ‘무신론의 서방 세계에 대항하는 성전聖戰’(53)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무력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대처하기도 전에 빠르게 진행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진다면(54), 어떻게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40여년 전부터 산업 국가의 여성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을뿐더러 태어나는 생명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생명들이 태 안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태연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에서만도 1976년부터 8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경제력이 가라앉게 되고, 기아의 곤궁에 시달리게 되며, 가난과 실업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따져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실한 가톨릭 신자인 크리스타 메베스는, 나날이 불안이 가중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쇠신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 33).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보내셨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우리의 시대는 어머니께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 말은 성부와 성자께서 이 시대에 공동 구속자이며 중개자, 변호자인 여인을 은 세상에 보내려 하신다는 뜻이다.”** 1951년 7월 2일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어머니 마리아에게 간청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없고, 전환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때처럼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간청하시며 증개하십니다(55).



재앙과 전쟁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마리아께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기도문과 관련하여 온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재앙을 피하게 해 달라고 변호자인 (모든 민족들의) 여인에게 간청하여라. 이 세상의 타락을 몰아내 달라고 여인에게 간청하여라. 타락으로 인하여 재앙이 일어난다. 타락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난다. 세상이 이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준 기도로써 청하여라. 이 기도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큰 힘을 갖는지 너희는 모르고 있다.” 1955년 5월 31일

성모님의 말씀처럼 재앙과 전쟁은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에서 비롯됩니다! 짧고 분명한 이 의미를 알아들었습니까? 만약 우리의 죄를 하느님 앞으로 들고 가서 통회하며 씻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에게 손해일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인 사탄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힘을 갖게 됩니다. 사탄은 무자비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힘을 부여하여 우리가 재앙을 맞닥뜨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에게 힘을 주어 재앙을 부른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56

따라서 재앙과 전쟁이 중단되고, 그 원인인 타락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회개했듯이(56) 겸손과 회개,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해성사(57), 기도(58), 사랑 가득히 모시는 영성체(59), 이웃 사랑(60) 그리고 단식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며(61) 하느님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전세계 40억 명의 사람들조차도,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이 말씀하신 **“공정과 진리와 사랑”** 1952년 12월 8일 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이기주의가 아닌 타인의 안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7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기도문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여인은 세상을 구할 것이다. 나는 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반복한다.” 1953년 5월 10일

“이 기도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큰 힘을 갖는지 너희는 모르고 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희의 변호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란다.” 1955년 5월 31일



58

하느님의 어머니는 당신이 새 기도문을 선포하신 이유도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영이 세상에 내리시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1951년 9월 20일

“너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게 될지 추측할 수가 없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모르고 있다.” 1951년 4월 15일



59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62). 하지만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극적이고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인은 이 호칭으로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하도록 여인의 주님이며 창조주이신 분으로부터 파견되었기 때문이란다. ... 이 기도로써 여인은 세상을 구할 것이다. 나는 이 약속을 다시금 반복한다.” 1953년 5월 10일



60



61



62

“일찍이 마리아로 불리었던”

여기서 기도문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해야겠습니다. “일찍이 마리아로 불리었던” 이 표현을 받아들이

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 기도를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발현 목격자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영적 지도자인 프레에 신부님과 기도문을 인가했던 후이버스 주교님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은 매우 마음에 들었지만 이 문구를 이해할 수 없었던 후이버스 주교님은 첫 인쇄 시에 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 보급 시에 이 기도문의 마지막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여인이시여, 저희의 변호자가 되어 주소서.”

하지만 하느님의 어머니는 기도문의 수정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찍이 마리아로 불리었던 모든 민족들의 여인이시여, 저희의 변호자가 되어 주소서.” 라는 내용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1952년 4월 6일

이미 그 전에 마리아께서는 이 표현의 의미를 짧게, 분명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일찍이 마리아로 불리었던’ 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마리아로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새 시대의 여명기에 나는 모든 민족들의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이를 알아들을 것이다.” 1951년 7월 2일

‘일찍이 마리아로 불리었던’이란 표현은 우리가 더 이상 하느님의 어머니를 묵주기도를 바칠 때 수십 번 반복하는 마리아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를 단지 이름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성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 마리아와 우리의 관계는 어머니와 어린아이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63).

사진(64)에서 보듯,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인구 중 대다수인 40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함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모든 민족들에게, 즉 그들 각자에게 어머니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여인의 성화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한 인도 남부의 힌두교 신자 소녀(65)를 보십시오. 소녀는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의 기도문 상본을 자신의 가슴에 꼭 껴안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일찍이 마리아였던 분을 이제는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됩니다(66). 그 결과 육신의 어머니에게 하듯이 마리아에게 마음으로 의존하고 마리아를 닮으려고 애쓰게 됩니다(67).



기도문의 일부 수정

그런데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대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할 테니 주의를 집중해 주십시오.

그 당시 후이버스 주교님처럼 지난 수년간 다시금 신자와 성직자들은 “일찍이 마리아로 불리었던”이란 표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올라왔습니다. 2005년 7월에 신앙교리성은 암스테르담·하를렘 교구 요셉 마리아 폰트 주교에게 이런 견해를 보내왔습니다. 즉 모든 민족들의 여인의 기도문에서 “일찍이 마리아로 불리었던”이란 표현은 오해의 여지를 지니므로 사목적 배려의 측면에서 삭제하기를 요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8월 8일 암스테르담 발현 조사 위원회의 조정관인 라파엘 소프너에 의해 암스테르담 주교의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교가 신앙교리성과 접촉하여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발표에서 주교는 신앙 교리성이 사목적인 염려차원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과 공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이 문장을 기도문에서 삭제하든지 마음속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교는 이런 조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순명과 개인적인 확신 사이에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발현 목적자를 언급했습니다.

발현 목적자인 이다 페르데만 역시 그 같은 딜레마에 빠졌었는데 ‘여인’에게서 ‘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명이 이 논제에 필요한 대화를 담는 것은 아니라고 주교는 말했습니다. 또한 상처로 가득한 이 세상에 ‘지금’ 성령을 보내 주시도록 성부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청하는 이 기도의 현재성과 실질적인 중요성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교는 이 모든 것에서 이런 토론으로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마리아 승천 교의 공표 후에 주어진 이 기도문의 이 문장 안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 마리아는 진정으로 누구인가? 성령 강림에서 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마리아는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2002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런 질문을 신학자들에게 던지면서 이에 관해 깊이 있는 대화를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여인이라는 호칭이 하느님의 어머니를 지칭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이 수정 기도문은 2009년 1월 6일자로 암스테르담·하를렘 교구장인 요셉 마리아 폰트 주교에게서 인쇄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문 끝부분은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이시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시여, 저희의 변호자가 되어 주소서.”

수년간 모든 민족들의 여인을 공경해 왔던 신자들이 이 새 기도문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순명을 당부합니다. 사랑의 순명이 있어야만 이 기도문이 교회의 축복과 주교와 신부들의 지지를 받으며 온 세상으로 널리 보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명은 암스테르담 성화와 기도문의 보급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의 여인은 진정한 평화를 선물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민족들은 교회와 함께 ‘교회와 함께’라는 말을 잘 이해하여라. … 내 기도문으로 기도해야만 한단다.” 1953년 3월 20일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 역시 겸손하게 순명 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성화

은총의 성화가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지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암스테르담의 메시지는 매우 독특합니다. 성화(68)를 자세히 살펴보면 왜 마리아가 우리의 어머니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왜 마리아가 당신의 어머니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예수님과 우리 또한 잉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며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향한 마리아의 모성에 대한 가장 깊은 이유는 아닙니다. 마리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이 점을 암스테르담의 은총 성화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 마리아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당신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과 함께 공동 구속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브라디 바르트가 그린 그림(69)에서 하느님의 어머니의 손이 온 인류를 잉태한 배 위에 있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는 인류를 새로 낳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암스테르담의 은총 성화에서 마리아는 성자의 빛나는 십자가 앞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이 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미 기적의 메달에서도 보았듯이, 어머니와 십자가는 하나이며 어머니를 십자가로부터, 십자가를 어머니로부터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습니다. 마리아께서 직접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그것은 아드님의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을 상징함과 동시에 공동 구속자인 마리아와 구원자와의 분리될 수 없는 일치를 표현합니다.

마리아의 양손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의 어머니일지라도 갈바리아에서 피를 흘리지는 않으셨기에 손의 상처가 의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누가 더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오상의 비오 성인(70)인가? 데레사 뉴만인가? 고통의 어머니인가?” 당연히 신학적으로도 옳은 대답인 “고통의 어머니!”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데레사 뉴만이 오상을 받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71). 데레사 뉴만이 오상을 받을 때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십자가 곁에서 아드님의 고통을 그대로 함께 겪으신 어머니의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점에 관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3년 5월 4일 일반 알현 시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마리아는 구원의 신비에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재물이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모든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우리 어머니께서 신비로운 상처를 지니신 이유를 이해하겠습니까?





2. 마리아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드님과 일치하여 민족들에게 모든 은총을 중개하는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은총 성화에서 보면, 마리아의 뚫린 양손에서 각각 세계의 빛줄기가 나옵니다(72). 이에 관해 마리아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세 줄기 광선은 은총과 구원과 평화의 광선이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성부께서는 나의 주님이며 스승이신 분의 은총을 통해서 당신의 외 아드님을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이제 성부와 성자께서는 거룩하고 참된 영이시며 평화 자체이신 성령을 보내려 하신다. 다시 말하면, 은총과 구원 그리고 평화를 보내려 하신다." 1951년 5월 31일



그 광선들은 그리스도의 양떼, 즉 세상의 모든 민족과 인종을 상징하는 희고 검은 양떼를 비춥니다. 뚫린 상처에서 은총이 흘러나오는 양손(73)은 공동 구속과 은총 중개의 내적인 연관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광선들은 사랑 때문에 짙어지는 모든 고통에서 솟아나는 은총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구속자로서 고통을 견디신 마리아는 그 은총을 구원자와 함께 일치하여 분배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3. 마리아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변호자로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며 악한 것과 사탄에 대항해서 우리를 막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뱀을 짓밟는 여인으로서 사탄에 맞서 싸워 이기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이시며, 이를 성경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기적의 메달과는 달리 암스테르담의 성화에서는 뱀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머니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74). 어머니 마리아의 변호의 힘을 그림으로 이보다 더 분명하게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마리아는 태양을 입고 뱀을 짓밟는 여인, 묵시록의 여인이십니다(75).



이런 까닭에 나는 암스테르담의 성화를 "낙원의 성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성화는 이미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승리를 보여 줍니다. 이 성화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날 새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보여 줍니다. 이 성화는 성화를 바라보며 그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확신과 기쁨을 줍니다. 참으로 요한 묵시록의 이 예언을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

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묵시 21, 3b-4).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삼중의 방법으로 마리아의 전인류적인 모성을 묘사한 이 은총 성화에 관해서 마리아께서는 이런 예기치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화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내가 말했다. 이 성화는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새 교의를 해석하여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직접 이 성화를 민족들에게 주었다." 1952년 12월 8일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교의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성화는 새 교의를 해석한 것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어떤 새로운 교의를 언급하신 것입니까? 마리아의 모든 발현 역사 안에서 마리아께서 교의의 선포를 직접 요청하신 것은 암스테르담 발현이 유일무이합니다! 마리아의 말씀대로, 그것은 "마지막이며 가장 큰" 1961년 8월 15일 마리아의 교의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교황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교의, 즉 공동 구속자, 중개자 그리고 변호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대관식을 위하여 힘써라!" 1963년 10월 11일

어머니는 신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교의의 내용과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책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신학자들에게 말하여라! ... 나는 새로운 교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1964년 4월 4일

"교회는 이 새로운 교의로 인하여 많은 반대를 겪게 될 것이다." 1961년 8월 15일

그로부터 50년이 훌쩍 지난 오늘 가톨릭 교회는 말 그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백 명의 추기경과 주교들이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 중개자 그리고 변호자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저명한 신학자와 신부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론 신학자들과 심지어 현대의 성인들도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을 매우 사랑하였고 즐겨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빈센트 팔로티, 안나 가타리나 엠메리히, 레오폴드 만딕, 막시밀리안 콜베, 에디트 슈타인, 오상의 비오 신부 그리고 마더 데레사 등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1982년 9월 8일 일반 알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마리아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의 수난에 참여하여 전 인류의 공동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교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거기엔 나름의 이유도 있습니다. 다수의 고위 성직자와 신학자들은 "공동 구속자"의 의미가 잘못 해석될 수 있어, 구원 역사에서의 마리아의 유일무이한 위치를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말합니다.

신자 여러분, 다음 사항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언급하는 것이 제 지향이며 의무라고 느낍니다. 현재 교황 베네딕토 16세이며 당시에는 신앙교리성 장관이었던 요셉 라칭거 추기경은 독일의 언론인 페터 제발트가 쓴 책 「하느님과 세상」에서 "공동 구속자" 호칭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 계획 안에서 마리아의 공동 협력은) 다른 호칭들로 더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은 성경과 성조들의 언어와 거리가 먼 까닭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곳 쾰른 교구의 요아킴 마이스너 추기경(76) 역시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76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신앙교리성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게 표명된다면, 현 교황 성하의 가장 절친하고 충실한 친구인 요아킴 마이스너 추기경은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민족들의 여인을 공경하기 위한 기도의 날을 자신의 교구에서 열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교리성의 이러한 태도는 주교, 사제, 신학자 또는 신자가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에 관한 신학적 논쟁은 열려 있습니다. “공동 구속자”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제대로 살펴보면, 마치 마리아가 하느님이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 구속자”가 뜻하는 것은, 원죄 없이 잉태되었으며 새 하와인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드님과 “함께” 완전히 일치하여,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해 있으며 오로지 예수님에 의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아드님과 어머니는 세상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공동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심장,
하나의 사랑,
하나의 고통을
지니셨습니다(77).
이런 까닭에 하느님의 어머니는 스웨덴의 비르지타 성녀(1303-1373)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과 하나로 세상을 팔았다. 나의 아들과 나는 하나의 심장으로 세상을 사서 얻었다.”

사랑의 대화

이 진리가 교의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공동 구속자” 호칭에 대한 신학적인 깊은 연구와 사랑의 대화를 통해, 특히 기도와 회생을 통해, 하나의 공동된 의견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 구속자” 호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를 부적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견해에도 마리아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마리아를 신학자로서 마리아에 관한 중요한 책들을 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유일무이한 위치가 좁아지지 않을까, 혹은 세계 교회 일치에 대한 대화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한편 신학자들 중 어떤 그룹은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으로 마리아를 공경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지만 이것을 교의로 정하는 데는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교의로 정할 수는 있지만 당장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적 사랑을 바탕으로 반대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믿음에 기초한 신학적 토론을 통하여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예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그의 가장 절친한 협력자였던 신앙교리성 장관 요셉 라칭거 추기경에게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황은 공동 구속자 호칭을 높이 평가하고 사용한 반면, 장관은 유보의 뜻을 지녔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안녕에 충성한 결실을 거두었던 두 분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교의는 무엇보다 기도의 열매가 될 것이며, 고통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교의는 기도와 고통으로 얻는 교의가 될 것입니다. 가장 힘있는 증개자들은 병자들이며 고통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자신의 삶을 그 교의를 위해 바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길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로 칭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은지 아닌지에 관한 신학자들의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주교들은 교황에게서 그들 자신의 의견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교황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교의는 사적 계시를 근거로 발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교의 선포를 통해 교회와 세상에 미치게 될 효과들에 대해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의 여인은 성령을 세로이 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며(78), 그로써 민족들을 위한 참된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여인은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럼 여인은 사도들과 온 세상의 민족들에게 성령을 다시 그리고 새롭게 전하기 위해서 올 수 있다. ... 그 교의가, 즉 마리아의 역사에서 마지막이 될 그 교의가 선포 되면 모든 민족들의 여인은 세상에 평화를, 참된 평화를 선사할 것이다.” 1964년 5월 31일

이 교의 선포를 통한 은총 가득한 결과들, 악에 대한 마리아의 승리, 그로 인한 세계 평화는 암스테르담 성화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화에서 뱀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뱀을 짓밟는 여인이신 마리아는 사탄의 맹렬한 기세를 꺾고 승리하기 위해서 공동 구속자, 중재자 그리고 변호자로서의 그녀의 성소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장엄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동 구속자” 교의의 선포 여부와 그 시기는 오로지 교황의 손에 달렸습니다. 또한 이 호칭이 내포한 내용이 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외면당한다면 교의로서의 채택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신자들이 마리아 신심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런 모든 여건이 무르익을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족들이 다시금 마리아를 어머니 또는 공동 구속자로 공경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젠가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당신에 관한 마지막 교의가 장엄하게 선포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신자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이 질문들에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때가 시급하다. 성자와 십자가를 위한, 변호자이며 평화와 안녕의 사절인 모든 민족들의 여인을 위한 대대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만 한다.” 1951년 4월 1일

대대적인 세계활동-“마리아적인 사목 프로그램”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어떤 대대적인 활동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성화와 기도문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한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교의 선포와 세계 평화를 위한 준비로서, 성화와 기도문을 전파하여 평화에 기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에 직접 이끔까지 붙여 주셨습니다. *“대대적인 활동”* 1953년 10월 11일, 심지어 *“구원과 평화의 사업”* 1951년 4월 1일 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성화와 기도문을 전하는 일을 *“구원과 평화의 사업”* 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다소 놀



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구원자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성사로 이끄시며, 그 결과 내적인 평화로 이끄시는 것이 마리아의 성소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구원과 평화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언젠가는 파나마에서 니카라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 여자 승무원에게 암스테르담 상분을 선물했습니다. 그러자 출발 직전에 그녀가 내 자리로 오더니 고해성사를 청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한 다음 다시 와서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에서 행복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때문인지 그녀의 동료도 고해성사를 청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었는지... 그때 나는 구원의 은총을 향해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신 분은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였다고 확신했습니다.

한 아이도 이 암스테르담 상분을 남녀노소와 신자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선물하는데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과 평화의 사업”** 1961년 4월 1일 을 이다 페르데만은 수많은 눈송이로 덮인 지구의 환시에서 보았습니다(79).

“눈송이가 세상에 휘몰아치듯이, 두꺼운 층으로 땅 위에 내려앉듯이 그렇게 성화와 기도문이 세상에 전파되고(80), 모든 민족들의 마음 속에 스며들게 될 것이다. 이 기도를 매일 바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눈이 땅으로 녹아 들듯이, 그 열매인 성령께서 녹아들 것이다.” 1961년 4월 1일

성화와 기도문을 전하는 이 일이 이렇듯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발현 목적자 이다 페르데만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 세상에 이것을 전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했습니다(81). 동시에 그녀는 자주 자신의 무능력함을 체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인은 이렇게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두렵다고? 물론 내가 도움 것이다. 너는 전파가 마치 저절로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1961년 4월 15일

“내가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964년 4월 4일

여러분,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일에 협력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제 나는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큰 열심으로 이 구원과 평화의 사업을 시작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기적을 보게 되리라!” 1961년 4월 1일

“너희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돕고,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파를 위해 노력하여라!” 1962년 6월 15일

“이 일은 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위한 일이다.” 1963년 10월 11일

“이 기도가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여라. 그들 모두는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단다. 세계는 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내게 분명히 말한다.” 1961년 4월 29일

“수도원(82) 들을 통하여 그 전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1963년 3월 20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현대적 수단을 통해서 이 기도는 전파되어야 한다.” 1961년 12월 31일

“그렇게 모든 민족들의 여인은 세상에 전해지게 될 것이다.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이 단순한 기도문은 하나의 유일한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1962년 2월 17일

이러는 동안에 이 기도문은 7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아름다운 증언들과 회개와 병자의 치유를 비롯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



다는 소식이 암스테르담에 날아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화와 기도문을 통해서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교황청의 동방교회성 장관인 시리아의 이그나체 모우사 다웃 추기경(83)과 여러 대륙에서 오신 주교님들께서는 암스테르담을 직접 순례하셨고, 미얀마의 양곤 교구의 차일스보 대주교님(84, 85)처럼 자신의 교구에서 받은 은총들에 관해 국제 기도의 날에 증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암스테르담 성화는 이제 수많은 성당(86)과 경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신자들은 암스테르담 순례성화가 가정, 기도 모임, 수도원, 학교(87), 감옥 등을 방문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당, 병원,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 성화를 걸려면 사전에 사제 내지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큰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다시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암스테르담 상분을 계속 전하십시오. 우리의 이 활동으로써 모든 신자들이 마리아의 새 교의의 선포를 위해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에 대해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교의가, 즉 마리아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될 그 교의가 선포되면 모든 민족들의 여인은 세상에 평화를, 참된 평화를 선사할 것이다." 1954년 5월 31일

지금도 전 세계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힘에 관해서 무지합니다. 대부분은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늘 날 우리는 삶을 위태롭게 하는 갖가지 재난이 나날이 급증하는 현실을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며 아무런 해결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어머니는 해결책을 갖고 계시며, 파티마에서처럼,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새롭고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머니께서 **"대대적인 세계 활동"** 이라고 정의하신 이 확실한 전략으로 우리의 열렬한 선교를 통해서 어머니의 요청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아들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매우 큰 책임이 있습니다. 민족들에게서 이런 책임 추궁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뭘,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세상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은 알고 있었다고? 그러고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기적의 메달은 1830년에 마리아께서 가타리나 라브레 수녀에게 주신 지 10년 만에 여러 민족의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민족들의 여인의 기도문 상본을 보급하는 데 단지 한 주면 될 것입니다. 단지 주교와 신부들과의 조화로운 협력 하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소용 수단과 대중 매체를 동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에 관해서 모든 민족들의 여인께서 명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현대적 수단을 통해서 이 기도는 전파되어야 한다. ... 그리하여 세상이 타락과 재앙과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1961년 12월 31일



뉴욕의 야경을 담은 이 사진을 보십시오(88). 화려하고 인상적인 도시 광경을 담은 이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빛,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저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십니다!’ 그들 각자는 하느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모셔다 드린다면 마리아께서 그들의 영혼이 성령에게 열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110층 세계 무역 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 공격을 당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많은 군대의 장교들이 최단 시간에 암스테르담 상본 50,000장을 모든 미군들에게 전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병사들에게도 전했습니다(89).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단언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 이 기도로써 우리는 타락, 재앙 그리고 전쟁을 피할 수 있다!” 그 후 미국에서 암스테르담의 기도문은 “평화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 또는 “어머니의 평화의 기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만다토 군종신부는 상본 2,000장을 직접 USS 군함에 실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군 부대에서 사목하는 델토로 신부에게 전했습니다. 델토로 신부는 그 부대의 모든 비행사와 대원들에게 상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복무하던 육군 대령 칼슨은 소속 부대가 이라크로 출발하기 직전에 상본 3,000장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3개월 만에 미국 내에서만 250,000장이 보급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톨릭 TV 방송국인 EWTN에서는 그 당시에 매 시간마다 암스테르담의 기도문을 방송했습니다.

“독일이 무척 내 마음에 걸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암스테르담의 발현에서 각 나라들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독일만큼 모든 민족들의 여인의 입에 자주 오른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열두 번이며, 독일이라는 이름만 언급하신 것은 서른 번 정도 됩니다. 모든 민족들의 여인께서 당신의 발을 독일 위에 굳게 두고 서 있는, 분명 특별한 의미를 띠는 그런 환시를 발현 목적자가 본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짧지만 힘있는 기도문을 게시하신 곳도 독일입니다. 은총 성화가 그려진 곳도 독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여인은 성화와 기도문이 독일에서부터 보급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기도문이 가장 먼저 보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와 함께 독일에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의 사랑과 열려의 마음으로 네덜란드와 독일이 처한 어려움을 언급하셨습니다.

“네덜란드는 멸망의 끝에 서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한 발을 그 위에 놓았다. 나는 내 말을 네덜란드에서부터 세상에 알린다. 나의 다른 한 발은 독일에 서 있다. 하느님의 어머니는 독일의 자녀들 때문에 운단대(90). 그들은 언제나 나의 자녀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민족들의 여인이라는 것이 독일에서부터 세상으로 전해지기를 원한다.” 1951년 8월 15일

모든 민족들의 여인은 이미 50여 년 전에 오늘날과 같은 신앙의 상실(91)을 상세하게 내다보셨는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당시에 독일과 네덜란드의 교회들은 신자들로 붐비고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현대의 이교도를 멀리하도록 해야만 한다.” 1949년 12월 3일 *“독일에게 경고한다! 사람들은 착하지만 갈팡질팡하면서 더 이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련한 독일!”* 1949년 12월 16일
“독일은 어떤 숙임수를 담하게 될 것이다.” 1950년 5월 27일

“독일을 로마교회로부터 멀리 떼어내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다.

“... 독일을 파괴시키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1950년 11월 16일 *“독일이 무척 내 마음에 걸리는구나!”* 1951년 2월 11일 *“성자께서는 독일을 특별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1950년 11월 16일

“독일은 정교도에서 아주 멀리 벗어난 사람들을 중심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데려오도록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사제는 적지만, 평신도는 많다. ... 이곳에선 무엇보다도 큰 사랑과 박애를 가지고 활동하여라.” 1951년 2월 11일





92

지금으로부터 이미 9년 전인 2000년 10월 13일 파티마의 마리아 발현 기념 미사에서 독일의 헬무트 바우어 주교(92)는 “경악할 신앙의 파국, 하느님에 대한 경멸과 부정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마리아의 이 예언이 얼마나 극적으로 적중했는지 짚었습니다. 또한 독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신을 종교인으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옛 동독 사람들 중 80%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우어 주교는 힘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시금 우리 신앙의 내적 위협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안에서 하느님은 낯선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에 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노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 하느님께서 처음에 세상에 오셨던 마리아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우어 주교의 말은 정말 맞습니다!



93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성애의 결핍과 내적인 상처로 인해 유난히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께서는 어머니로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로서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시키려고 오십니다.

마리아는 이른바 1958년부터 1984년 3월 25일까지 주셨던 “성체의 체험들”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없는 교회와 민족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1965년 5월 31일 성체의 체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한 사람의 삶을 매우 좌우합니다. 영혼의 상처를 입은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크리스타 메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94

“갓난아기는 엄마의 심장 박동을 알고,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으며, 심지어 양수와 비슷한 자기 엄마의 껍(93)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생후 몇 주가 지나면 엄마의 얼굴을 알아봅니다(94). 자신의 생사를 보증하는 엄마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보증이 오랫동안 결핍된다면, 아기는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생후 첫 몇 해에 갓난아기에게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엄마의 심장 박동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엄마는 아기가 울 때 본능적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에 아기 얼굴을 두어(95) 아기가 엄마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아기는 이미 엄마 안에 있을 때부터 들었기에 그리듬에 익숙합니다.”

이 말은 신앙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에 관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음성을 다시 들어 봅시다.

“어머니 없는 교회와 민족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1965년 5월 31일 성체의 체험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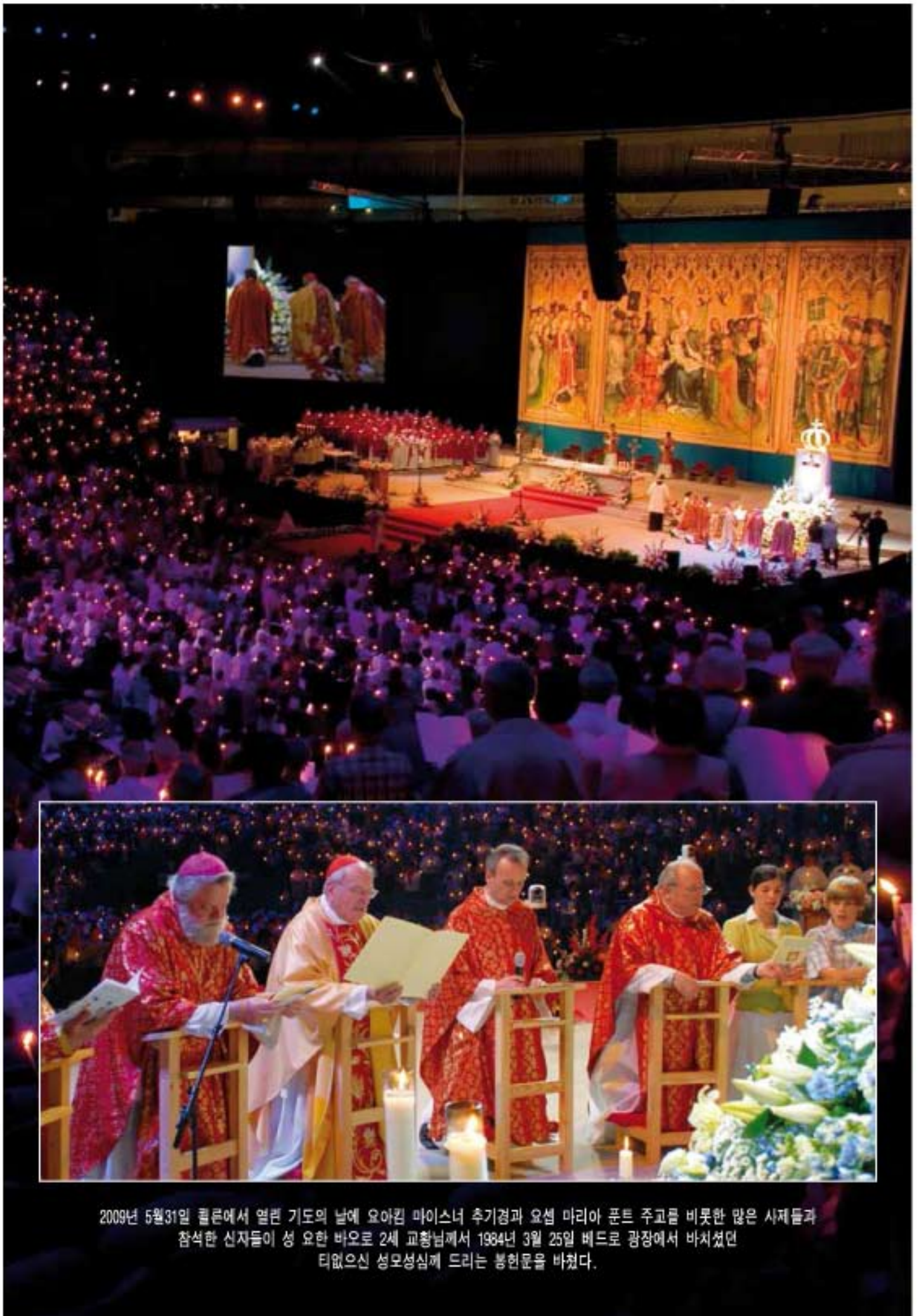
"잘 들어라. 주님께서도 세상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어머니가 필요하셨다(96).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이 온다. 그렇기에 어머니를 다시 교회 안으로 그리고 민족들 가운데로 모셔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번영을 체험할 것이다." 1973년 3월 25일 성체의 체험

교회 번창의 기적이 이곳 독일에서, 유럽과 다른 모든 대륙에서 일어난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새로운 확신과 힘찬 활동으로 마리아의 은총 성화와 기도문이 전 세계에 보급되도록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는 **세계 활동**을 통해 협력해야 합니다(97).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길을 통해서, "어머니"라는 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참된 평화로 이끄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98). 마리아께서도 이 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며 참된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1965년 5월 31일



2009년 5월 31일 쾰른에서 열린 기도의 날에 요아킴 마이스너 추기경과 요셉 마리아 폰트 주교를 비롯한 많은 사제들과
 참석한 신자들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1984년 3월 25일 비드로 광장에서 바치셨던
 티없이신 성모성심께 드리는 봉헌문을 바쳤다.



폴 마리아 시글 Paul Maria Sigl 신부님은 1949년 10월 22일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으며
1992년 12월 8일 파티마의 발현 기념 성당에서 신품성사를 받았다.
현재 성좌 설립 '마리아 가족 선교회'의 영적 지도자이다.
그는 암스테르담의 발현 목격자인 이다 페르데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25년 이상 그의 영적 어머니였다.
그래서 그는 암스테르담 메시지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사진

알 표지: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성화와 세계운동
뒷 표지: 로레토 © Basilika vom Heiligen Haus

출판

마리아 가족 후원 재단
Niederstraße 65
DE - 41460 Neuss

이 강연집의 주문을 원하시거나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에 관한 다른 자료들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한국:  아메리카출판사 051-631-2929, 051-635-450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051-646-3746, 051-635-3854

유럽: PDF-마리아 가족회
Dünzelbach 130, D-82272 Moorenweis
Tel: 0049 / (0) 81 46 / 99 63 35
Fax: 0049 / (0) 81 46 / 99 74 99
이 메 일 : st.josef@familiemariens.org

마리아 가족회의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웹사이트: www.de-vrouwe.info



〈성령 강림〉 이탈리아 로레토 산타 카사 성당

“다음의 말들을 잘 이해하여라.

모든 민족들의 여인은 그녀에게 은총과 구원
그리고 평화를 청하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것을 선물할 수 있고 선물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모든 민족들의 여인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

1952년 2월17일 암스테르담 메세지